

# 『명리탐』의 합칭지명合稱之名 연구

강상진\*

## 【요약】

아리스토텔레스 『범주』에 등장하는 데노미나티바denominativa는 다른 무엇보다 그리스어의 언어적 특징에 토대를 둔 정의를 가지고 있다. 이 작품의 17세기 중국어 번역에 해당하는 『명리탐』은 중국어가 가진 언어구조 속에서 이것을 합칭지명合稱之名으로 번역하며 가능한 충실하게 원전의 사유를 따르려 한다. 『명리탐』의 번역자들은 그리스어 혹은 라틴어의 형태론에 근거한 데노미나티바의 정의를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진 중국어에서는 문자적으로 번역할 수 없다고 판단, 음차와 해석적 의역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봉착한 어려움이 무엇이었으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려 했는지 분석하고 검토하면서 이러한 시도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찰한다.

【주제어】 아리스토텔레스, 범주, 이지조, 명리탐, 합칭지명, 파생

---

\* 서울대학교 철학과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1381)

<https://doi.org/10.34162/hefins.2020..24.001>

## I. 들어가는 말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 1장은 나중에 어디에 쓰려고 설명하는 것인지 일단 불분명한 세 개의 개념적 도구 혹은 정의로부터 출발한다. 서로 짝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처음 두 개의 정의, 즉 동음이의(homonymy)와 동음동의(synonymy)도 『범주』 안의 어떤 구절에서 쓰이는지 금방 알기 어렵지만, 더욱 어려움을 주는 것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파생<sup>1)</sup>(paronymy)이라는 개념적 도구이다. 세 개의 개념 모두 말과 말 사이의 관계인지, 말로 지시된 사물과 사물 사이의 관계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특히 파생은 주로 작품이 쓰여진 그리스어의 언어적인 특징에 의존하는 정의를 가지고 있어서 사태를 더욱 어렵게 한다. 우리의 관심은 정확히 이 파생, 혹은 파생된 이름으로 불리는 것에 관한 것이다. 같은 어족에 속하는 그리스어와 라틴어 사이에서, 또 더 나아가 비슷한 언어적 특징을 공유하는 영어나 프랑스어, 독일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그리스어에서 제시된 정의를 거의 글자 그대로 번역할 수 있다. 동일한 어근으로부터 어미를 달리하는 여러 단어, 혹은 그런 단어로 지칭되는 사물들을 가리킬 수 있다는 형태론적 특징을 공유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형태론적 특징을 공유하지 않는 언어에서는 파생이 무엇인지 번역을 통해 설명하는 일이 대단히 어렵다. 파생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당연히 그런 개념적 도구를 가지고 철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혹은 도달할 수 있는 통찰이 무엇인지도 따라가기 어렵게 된다.

이 어려운 과제를 중국어에서 처음 시도한 것은 1632년에 출간된 『명리탐

---

1) 그리스어 파로니몬의 통상적 번역은 ‘파생’ 혹은 ‘갈려나온 것’이다. 라틴어로 ‘데노미나티바(denominativa)’로 번역되고 이것이 『명리탐』의 음역의 토대가 된다. 한국어의 적절한 번역어에 대한 일차적 토론으로 강상진 (2016), pp. 117-146을 참고할 수 있다.

』<sup>2)</sup>이라는 작품에서이며, 아리스토텔레스 『범주』에 관한 포르투갈 코임브라 대학 소속 예수회원들의 라틴어 번역과 주해를 저본<sup>3)</sup>으로 삼아 중국어 번역을 시도하고 있다. 원천 언어source language의 형태론적 특징에 의존하는 철학적 사유는 그것과 전혀 다른 언어 구조를 가진 번역 언어target language에서 어떻게 번역되는가? 본 논문은 이 과정에서 『명리탐』의 저자들이 봉착했던 문제와 해결 시도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갖는다. 17세기 중국어 번역자들은 그리스어 혹은 라틴어의 형태론에 근거한 데노미나티바<sup>4)</sup> denominativa의 정의를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진 중국어에서는 문자적으로 번역할 수 없다고 판단, 음차得諾靡納第勿와 ‘합칭지명合稱之名’이라는 해석적 의역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봉착한 어려움이 무엇이었으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려 했는지 분석하고 검토하면서 이러한 시도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찰한다.

이러한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논문은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의 데노미나티바에 관한 비교적 자유로운 입문을 시도할 것이다. 이것은 중국어 번역을 검토하기 전에 일단 한국어로 무엇이 문제인지 점검하면서 토대를 확보하는 성격이 될 것이다. 이후 『명리탐』에서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데노미나티바를 이용한 사유가 작동하는 몇 대목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그것은 7장에 등장하는 관계 범주에서도, 8장 질 범주에서도 나타나며, 10장 소유와 결여의 대립을 논할 때도 다시 등장한다. 물론 분석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에는 이것이 데노미나티바와 관련된 논증이라는 어떤 단서도 등장하지 않지만, 분석과

2) 작품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연구로 다음 두 논문을 참고하라. 염정삼 (2011), pp. 76-81; 염정삼 (2016), pp. 129-169.

3) Commentarii Collegii Conimbricensis e Societate Iesu *In Universam Dialecticam Aristotelis Stagiritae*, Conimbricae: Didaci Gomez Loureiro 1606. 저자가 제목의 일부가 된 서명을 번역하자면, ‘예수회 소속 코임브라 대학 교수들(이 지은) 스타게이로스 출신 아리스토텔레스의 일반 논리학에 대한 주해’ 정도가 될 것이다.

4) 향후 이 논문에서는 그리스어 paronyma 대신 『명리탐』의 저본에서 이것의 라틴어 번역으로 등장하는 denominativa를 음차해서 쓸 것이다.

해설을 통해 연결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준비 작업 후 비로소 데노미나티바의 정의가 등장하는 1장을 다룰 것이다. 이 논문이 왜 『범주』편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첫 장의 논의를 마지막에 다루는지는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나름 이해될 것이다. 결론에서는 『명리탐』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흥미한 다음 향후 연구를 위해 남은 문제들을 간략히 정리할 것이다.

## II. 몸 말

### 1. 데노미나티바denominativa: 철학적 입문

오늘의 경기 요약: “류현진이 류현진했다”. 2019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류현진 투수가 등판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날 볼 수 있었던 기사 속 표현이다. 평소 혹은 가장 투구를 잘 할 때의 모습 그대로 오늘도 투구를 했다는 뜻이리라. 한국말의 놀라운 조어능력이 돋보이는 순간이다. 류현진은 원래 고유명사로 언제 어디서 태어나, 어느 학교에서 야구선수로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은 미국 메이저리그 특정팀의 투수로 활약 중인 사람이다. 부상을 이유로 경기에 나오지 못한 때도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전성기급에 가까운 활약을 다시 보여줘서, 경기에 나오면 볼넷을 거의 주지 않고 점수도 거의 주지 않으면서 승리투수가 되는 것이 흔한 일이 되어 버렸다. 우리는 그 모습을 ‘류현진하다’라는 새로운 동사로 만들어 오늘도 ‘류현진했다’고 하면 투수로서 그만이 보여줄 수 있는 고유명사급 성취를 표현하는 말로 쓰는 것이다. 물론 그가 타자로서 홈런을 치거나 타점을 올리면 고등학교 시절에도 4번 타자로 타격도 곧잘 하던 선수였다는 것을 상기하지만, 그런 성취를 ‘류현진하다’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홈런은 쳤지만 투수로서 점수를 많이 내줘서 패전투수가 된

날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유명사에서 고유명사에 어울리는 활동 내지 활약을 하는 것을 표현하는 동사가 나오는 것이 이해된다면, ‘류현진다음’ 혹은 ‘류현진답다, 류현진스럽다’라는 표현도 쉽게 이해될 것이다. 서양 언어학의 품사체계로 말하자면, 류현진이라는 고유명사로부터 고유명사의 독특한 활동을 표현하는 동사, 고유명사의 전형성을 담아내는 형용사가 파생되어 나오는 셈이다. 물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특정한 동작을 지칭하는 말에서 그런 일을 주로 담당하는 주체를 부르는 말이 나오는 경우, 가령 돌보는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을 돌보미로 부르거나, 도와주는 일을 주로 하는 도우미, 등하교길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는 지킴이 혹은 지킴이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젊다는 특성을 담지하고 있는 시기의 사람을 가리켜 젊은이로 부르는 것은 형용사로부터 형용사가 가리키는 속성을, 나이를 충분히 먹는 어느 시점에는 잃게 되겠지만 지금은 젊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주체를 가리키기 위해 쓰는 말이다.

류현진이라는 고유명사로부터 도출된 ‘류현진하다’, ‘류현진답다’와 같은 새로운 단어들은 류현진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도움에서 파생한 도우미, 젊음 혹은 젊다는 말에서 파생한 젊은이도 일단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언어생활을 돌아보면 의외로 많은 단어들이 원천명사로부터 파생되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야구 경기에서 수비팀이 맡는 역할에 따라 투수, 포수 등의 이름이 붙는데, 대부분 그 위치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동사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투구라는 동작에서 투수, 포구라는 동작에서부터 포수를 부르는 식으로 말이다. 기타吉他和 기타리스트吉他手처럼 악기와 악기연주자를 부르는 이름도 그렇게 설명되고, 마라톤과 마라토너<sup>5)</sup>처럼 운동경기와 운동선수를 부르는 이름도

5) 악기와 악기연주자를 표현하는 말을 영어식 -er를 통해 새롭게 이름 붙이는 경우로 가야금과 가야금머를 들 수 있겠다. 이 조어법이 한국어 언중에 의해 받아들여질지는 물론 다른 문제이다.

그렇게 설명될 수 있다. 도예陶藝와 도공陶工, 건축과 건축가, 의술과 의사, 기사記事와 기자記者처럼 직업이나 활동에서도 자주 관찰되는 일이다.

이후의 논의를 위해 이 단계에서 일단 두 가지를 확인해 두자. 파생관계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사물, 혹은 두 개 이상의 말 사이에서 성립한다. 파생이 그로부터 연원하는 원천 같은 것이 있고, 그 본원에서 이름을 받아 부르는 파생된 무엇이 있다. 두 번째로 파생관계는 단순히 말과 말 사이의 관계 이상인 것처럼 보인다. 파생된 것이 더 구체적이고 경험적이며, 파생이 그로부터 유래했다는 성질, 활동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이라 오히려 나중에 알려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젊음이나 어린이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젊음은 그런 식으로 조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투수, 젊은이, 건축가, 의사, 기자와 같이 파생된 것, 우리 감각에 특정한 이름을 가지고 대상으로 주어지는 것의 존재론적 지위를 묻기 시작하면 우리의 자연스럽던 조어법이 예상치 않았던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젊음이는 실체인가? 건축가는, 의사는, 기자는 실체인가? 실체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서양 중세에서 『범주』를 공부한다는 것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기초를 닦는 일에 속했다.

## 2. 데노미나티바: 형태론적 vs. 의미론적 접근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류현진이란 고유명사로부터 ‘류현진하다’나 ‘류현진답다’는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류현진이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은 못하고 그만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기대되는 것을 수행한다는 일련의 행위들을 의미의 공통치 같은 것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의미의 핵Core을 공유한다고 해도 실제 문장에서는 적절한 품사로 변형되어 그 품사에 기대되는 방식으로 쓰여야 한다.

---

6) 11세기 철학자 안셀무스(1033-1109)의 작품 중 하나가 정확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Anselmus (1946), De Grammatico.

- (1) 류현진이 류현진다운 (형용사) 투구를 했다.
- (2) 류현진이 류현진답게 (부사) 경기했다.
- (3) \*류현진이 류현진다운 투구했다.
- (4) 류현진이 류현진했다 (동사).

이 문장 중에는 무슨 얘기를 표현하고 싶은지 알지만 정확하지 않게 표현했다는 느낌이 드는 문장이 있다. 이러한 우리의 언어적 직관은 의미의 핵을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문장에서는 각 언어에서 요구하는 문법적 기능에 충실한 방식으로 부사로 표현되거나 형용사로 혹은 동사로 표현되어야 함을 알려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편에 나오는 파생(어), 혹은 파생된 것에 관한 정의는, 의미를 공유하지만 문법적, 표현적 기능은 다른 말로 혹은 그 말로 지시되는 것들은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야, 원전에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미語尾는 달라야 한다’는 얘기로 읽을 수 있다. 언어마다 이 요구를 소화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단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처럼 들린다. 그의 얘기를 조금 변형해서 말하자면 음악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음악가’로 불러야지, ‘음악’으로 부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음악가가 음악을 하지, 음악이 음악가를 하지는 않는다. 너무 당연한 말이다. 우리가 이미 당연하게 실천에 옮기고 있어서 한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말이다. 조금 어렵게 얘기하자면, 의미를 공유하지만 문법적 형태까지 공유하거나 공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명사적인 형태, 형용사적인 형태, 부사적인 형태 혹은 동사적인 형태<sup>7)</sup>로 적절하게 변형될 필요가 있다. 의미적으로 동일한 근원을 가지면서[同根], 문법적으로는 다른 형태[異形]를 갖는 관계가 데노미나티바denominativa 관계<sup>8)</sup>이다. 음악과 음악가처럼,

7)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동일한 내용이 이런 식으로 차별적 품사를 따라 언어적으로 구조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박홍규 (2004) p. 229; p. 245.

8) 데노미나티바denominativa의 통상적 번역은 ‘파생어’이다. 무난한 번역어이지만, 철학적인 함축을 전달하기에 충분한 번역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번역어에 관

의술과 의사, 투구와 투수처럼 말이다. 이 아이디어가 최초로 정식화된 그리스어, 중세적 전통을 이룬 라틴어 번역, 혹은 같은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언어의 경우 의미론적 연결관계와 형태론적 정의가 대부분의 경우 맞아 떨어지지만, 다른 언어권에서도 그렇지는 않다는 데 있다. 그리스어, 라틴어에서는 이름을 가져오면서도 어미를 통해 품사적으로 다른 형태를 가져 문장의 문법적인 요구를 소화하는 한 단어를 기본 모델로 하지만, 다른 언어에서는 동일한 의미론적 이해가 다른 방식으로 소화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따라온 사람이라면 법에서부터 법관, 법원이 파생되지만, 동시에 입법, 사법과 같이 의미적으로는 법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만한 연결이 형태론적 『법주』편의 형태론적 정의는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한자를 이용한 조어법에서는 파생을 통해 추가되는 의미계가 앞에 붙을 수도 있고 뒤에 붙을 수도 있으며, 그때 추가되는 의미계가 원어에서보다 강하게 부각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일한 의미를 공유하면서도 형태론적 차이를 통해 문법적 기능을 소화하지 않는 언어에서라면 파생, 혹은 파생된 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인도-유럽어족이나 한국어에서처럼 어미를 통해서든 다른 장치를 통해서든 품사적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언어도 있지만, 중국어처럼 품사적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단어를 통해 문장을 만드는 언어에서는 과연 데노미나티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는 류현진이 류현진다운 경기를 했다고 말하면서 고유명사와 고유명사에게 기대되는 바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구별하지만,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다는 말을 군군郡君, 신신臣臣으로 표현하는 언어에서는 과연 이런 통찰을 번역으로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이 『명리탐』의 번역자들이 『법주』를 번역할 때, 특히 데노미나티바를 번역할 때 부딪혔을 문제일 것이다. 이제 이 문제가 번역의 현장에서 어떻게 소화되는지 살펴볼 때이다.

---

한 토론은 각주 1에서 제시한 강상진 (2016), pp. 122-124 참고.

### 3. 『명리탐』의 데노미나티바

#### 1) 관계 범주

『범주』편 7장에서 관계를 논하는 중 논의되는 주제는, 관계 범주의 특징 중 하나인 상호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서로) 상대방을 향해 얘기된다’는 성질이다.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는 A가 B의 남편이면 B는 A의 아내라는 식으로 서로 자리를 바꾸어서 얘기된다는 것이다. C와 D가 주인과 종의 관계라면 C는 D의 주인이라고 얘기되며 동시에 D는 C의 종이라고 얘기되는 것이 관계 범주에 속하는 것들의 특징이라는 것<sup>9)</sup>이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관계를 구성하는 짝이라고 이해되면서도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향해 얘기된다’는 성질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새와 날개를 그런 쌍의 하나로 지목하는데, 새의 날개라는 말은 자연스러워도, 그 반대의 경우는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이유로 보인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명시적으로 이유를 날개 없는 새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를 생각할 때 새와 날개의 관계는 필수적이지만, 날개를 생각할 때 새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관계를 맺는 두 항이 서로 상호적이어야 하고, 그래서 한쪽에서의 관계는(A-B) 대칭적으로 다른 쪽에서의 관계(B-A)를 함축해야 할 것 같은데, 남편이나 아내의 경우, 혹은 주인과 종의 경우에는 충족되던 이 관계의 성질이 새와 날개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분석은 비교적 간단하다. 관계항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날개의 진정한 짝, 즉 지금까지 설명한 상호성 내지 대칭성을 만족시켜줄 상대방 관계항은 ‘날개 달린 것’ 혹은 ‘날개를 가진 것’이지 새는 아니라는 것이다. 날개와 날개 달린 것의 관계는

9) 내용에 대한 소개는 강상진 (2019a), pp. 258-261.

이렇게 정리된다. 날개달린 것의 날개라는 관계가 충족된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거꾸로 날개의 날개달린 것이라는 관계도 충족된다. 날개 때문에 날개달린 것이 그렇게 불리는 것이며, 역으로 날개는 날개달린 것이라는 전체의 부분으로 그 의미를 확보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분석을 이렇게 정리한다.

그러므로 모든 관계는, (관계항이) 적절하게 주어지는 한 상대방을 향해 얘기된다. 그것에 대해 관계가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해) 우연적인 것이 주어진다면 상대방에 대해 얘기되지 않기 때문이다.<sup>10)</sup>

그리스어에서는 한국어 번역에서 ‘날개달린 것’으로 번역한 말이 날개 pteron로부터 파생된 denomiativum 한 단어 pteroton로 표현된다. 한국어로는 <날개 + 달림 + 것> 혹은 <날개 + 가짐 + 것>이라는 적어도 세가지 의미계기를 한 단위로 만들어야 비로소 하나의 관계항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리스어에서는 주인-노예, 남편-아내처럼 한 단어와 한 단어 혹은 한 사물과 한 사물 간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어에는 없는 말이지만 <날개달린 것>을 ‘날달이’[‘달’은 달려있음을 표현하는 말로, ‘이’는 어린이, 젊은이처럼 어떤 속성의 담지자를 표현하는 의미로 만든 말이다.]로 줄여 말할 수 있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 얘기되는 것처럼 날개와 날달이도 서로 상대방에 대해 얘기되는 것이다. 날달이는 새를 부분집합으로 포함하지만 다른 날개 달린 것, 예를 들어 나비와 같은 곤충, 종이 비행기와 항공기 같은 인공구조물도 포함하게 될 것이다. 날달이에서 새를 뺀 여집합의 존재가 새와 날개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 얘기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이었다는 것이 이제 분명해 졌을 것이다. 데노미니티바에 관한 명시적 언급은 없지만 이런 분석의 근거에 데노미니티바 토포스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

10) Cat. 7, 7a22-25.

보인다. 이제 『명리탐』이 이 대목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살펴볼 시간이다.

夫凡互物者, 彼此相轉應. 君謂臣所君, 臣謂君所臣. 倍謂半之倍, 半謂倍之半.<sup>11)</sup>

대체로 모든 '서로 관계하는 물건[互物]'들은, 서로 간에[彼此] 맞바뀔 수 있는 것[相轉]들로 대응한다[應]. (예를 들어) 군주[君]는 신하에게서 군주가 되는 사람[臣所君]으로서 말해지며, 신하[臣]는 군주에게서 신하가 되는 사람[君所臣]으로 말해진다. (또한 예를 들어) 배[倍]는 절반의 배[半之倍]라고 말해지며, 반[半]은 배의 절반[倍之半]이라고 말해진다.

不相轉應者, 所指義非切. 指鳥謂翼者, 鳥翼非相轉. 凡謂有翼者, 固不盡爲鳥. 云翼云翼者,<sup>12)</sup> 乃切指相轉. 緣凡謂之翼, 必屬有翼者, 凡云有翼者, 必視翼而謂<sup>13)</sup>.

서로 맞바뀌는 것들[相轉]로 대응하지[應] 않는 경우에는, 가리키는 의미[所指義]가 적절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새를 가리켜 날개달린 것[翼者]이라고 말하는 경우인데, (이때에) 새[鳥]와 날개[翼]는 서로 맞바뀔 수 있는 것[相轉]이 아니다. (왜냐하면) 날개달린 것[有翼者]을 말하는 모든 경우에, 진실로 다 그것이 새가 되는 것[鳥]은 아니기 때문이다. '날개[翼]'라고 하고 '날개달린 것[翼者]'이라고 할 때만이, 비로소 적절한 의미에서[切指] 서로 맞바뀌는 것들[相轉]이 된다. 왜냐하면[緣], 날개[翼]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날개달린 것[有翼者]에 속하고, 날개달린 것[有翼者]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날개[翼]를 보고[視]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명리탐』은 간결하게 문제되는 대목의 핵심을 잘 전달하는 번역을 제공하고 있다. 원문의 주인과 종의 예가 군주와 신하의 예로 바뀐 것이나 원문이

11) 傅汎際譯義, 李之藻達辭 (1965) 《名理探》, 臺北:臺灣商務印書館, p. 433. 향후 『명리탐』에서 인용할 경우 이 판본에서 인용하되 쪽수만 인용한다.

12) 원문주에는 오해를 피하기 위함인지 다음과 같은 설명이 붙어있다. 下翼者, 指有翼之物.(뒤에 오는 '翼者'는 날개달린 물건有翼之物을 가리킨다.)

13) 『名理探』 p. 433.

제공하는 추가적인 예를 과감하게 생략한 것은 간명한 이해를 위한 시도로 보인다. 우리의 관심은 날개와 날개달린 것 사이에서 성립하는 파생관계, 날개의 denominativum인 ‘날달이’를 어떻게 번역으로 잡아내느냐 하는 것이다. 명리탐은 익과 (유)익자로 잡아내고 있는데, 유익자의 의미를 분석하자면 한국어와 순서만 다를 뿐 ‘날개 + 달린(가진) + 것’의 계기들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분명하게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그리스어나 라틴어의 파생어에서는 지금 중국어 조어에서 보이는 분절된 의미계기의 추가가 없다는 점<sup>14)</sup>이다. 이 목적을 위해 한국어에서 만든 말 ‘날달이’의 ‘달’과 ‘이’는 그 자체로 전달해주는 의미가 없고 이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에 덧붙여서 쓰임새를 만들어줄 뿐이라면, 유익자에서 익을 제외한 글자들은 각자 독립해서 쓰일 수 있는 의미계기를 가진 말이라 해야 할 것이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아마 이 요소가 파생어에 독자적인 별도 의미 지위를 주지 않는 언어와의 차이를 만드는 것일 테다. 도우미에는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 계기 외에 다른 점이 강조되지 않는다. 투수는 포수에게 공을 던지는 일 말고도 다른 일을 하지만 주로 던지는 역할에서 자신의 주된 의미를 받는다. 마찬가지로 유익자에서 날개의 의미 계기만 남겨두어야 데노미나티바 사유가 작동하는데, 적어도 중국어 조어상으로는 날개의 의미 계기처럼 강하지는 않더라도 가지고 있음[有] 혹은 가지고 있는 것[者]의 의미계기가 못지 않게 출현하는 것도 번역에서 피할 수 없어 보인다.

## 2) 질 범주

<범주> 8장의 질 범주를 논의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질 자체 *poiotēs*, *qualitas*와 그 질을 가진 것 *poion*, *quale*를 구별하는 설명 전략을 취한다. 관계 자체와 관계에 들어가는 것, 소위 관계항을 개념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면

14) 그리스어의 경우 날개 *pteron*와 ‘날개를 가진 것 *pteroton*’, 라틴어의 경우도 각각 파생관계를 갖는 한 단어로 (날개: *ala*, 날달이 *alatum*) 표현된다.

질 자체와 질을 가진 것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원본 명사와 그로부터 파생된 것의 관계를 이해한다면 질 자체로부터 그 질을 가진 것이 파생된 것으로 설명하는 것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방식이다. 한국어에는 형용사에서부터 파생된 명사들의 특정한 예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젊다, 젊은, 혹은 어리다, 어린으로부터 젊은이나 어린이가 파생되는 경우처럼 말이다. 색깔을 표현하는 형용사로부터 파생된 것은 아마도 검둥이나 흰둥이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젊음이라는 질을 가진 기체가 젊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피부의) 흰을 가진 담지자가 흰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처럼 말이다.

[古] 何似也者何. 物所以何似, 是謂何似者.<sup>15)</sup>

어떠함[何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물[物]이 그것으로 인해 어떠해지는 바[所以何似]’, 이것을 일컬어 어떠함[何似]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파생 관계와 그것과 잘 맞아 떨어지는 그리스어의 파생적 조어법을 근거로 일반화한다면, 대부분의 성질 내지 특징을 표현하는 말들은 성질 자체 혹은 특징 자체를 가리키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똥똥이나 흘쭉이 같은 성질의 담지자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가수는 혹은 ‘가수’라는 말은 그가 노래를 (직업적으로) 한다는 특징에서 파생된 말이며, 감독관은 그의 주임무인 ‘감독’에서 파생된 것이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의사’는 그가 습득한 의술 내지 의학지식에서 파생된 말이다. 이런 생각을 조금 친숙하게 만드려면 의술 내지 의학지식이 없는 의사가 의사인가, 혹은 의사라고 불릴 만하다고 자문해보라.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는 도우미는 도우미인가? 그 이름으로 불리우는 개체를 하필 그 이름으로 불리게 하는 핵심적 계기가 무엇인지

15) 『名理探』 p.468.

묻는 순간, 정확히 이 연결에 따라 그 이름이 붙여졌다고 볼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물론 실제 세상은 이것보다 복잡해서 정의롭지 않은 법도 있고, 사실은 모범적이지 않은 모범생도 있고, 왕답지 않은 왕도 있(었)지만 말이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와 『명리탐』의 중요한 차이 중의 하나는 질 자체와 질을 가진 것 사이가 언어적으로 파생 관계를 통해 표현된다는 설명방식을 얼마나 일반화하는가에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이 거의 모든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하지만<sup>16)</sup> 『명리탐』은 이 점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즉 의미론적 연결과 잘 맞아떨어지는 형태론적 연결이 있는 방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드는 예들을 파생 관계에 준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이제 『명리탐』의 해설을 들어보자.

何似者云何. 凡就因繇稱, 或就指義稱. 以從其何似, 是謂何似者, 因白稱白者, 因義稱義者, 是因所本名, 以名其何似.<sup>17)</sup>

어떠함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대개 인유(因繇)를 취하여 칭하거나, 가끔 그 의미하는 바(指義)를 취하여 칭한다. 그 어떠함을 따름으로써 이것을 어떠한 것(=어떠함을 가진 것)으로 부르는 것이니, 힘으로 인하여 흰 것을 칭하고, 의로 인하여 의로운 것이라고 칭한다. 이것은 그 본래 이름으로 인하여, 그것이 어떠함을 이름하는 것이다.

일단 원문의 ‘파생’에 가장 직역에 가까운 번역인 ‘인유(因繇)’를 살펴보자. 본래 이름 혹은 본래 이름이 이름하는 바가 있고, 여기에서 ‘인유’를 취한

16) Cat. 8, 10a29-30. 코임브라 텍스트도 정확하게 이 부분을 옮기고 있다. In plerisque igitur, quin potius fere in omnibus, denominative dicuntur: ut ab albedine albus, a musica musicus, & a iustitia dicitur iustus... Commentarii Collegii Conimbricensis e Societate Iesu *In Universam Dialecticam Aristotelis Stagiritae*, Conimbricae: Didaci Gomez Loureyro 1606. p. 363. 향후 이 작품은 *Conimbricensis*로 약하고 이후 인용 쪽수만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17) 『名理探』 p.465.

이름 혹은 인유를 통해 이름하는 바가 있다. 白에서 白者, 義에서 義者가 나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何似에서 何似者가 나오는 일반적인 구조이다. 지금까지의 설명대로라면, 원전이 전면에 내세우는 형태론적 파생 관계가 감싸고 있는 의미론적 연결을 ‘인인’으로 정확히 잡아내는 것으로 보인다. 의미론적으로는 정확하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이것이 과연 ‘파생’의 형태론적 정의를 충족하느냐는 것이다. 이미 전절에서 살펴본 날개翼과 ‘날개 달린 것有翼者’의 관계에 비추어보자면, 白에서 白者, 義에서 義者, 즉 힘에서 흰 것, 의에서 의로운 것이 나오는 관계도 같은 논리로 잘 이해된다. 중요하게 지적해야 할 것은 한국어의 ‘것’이나 중국어의 ‘者’가 추가되는 방식이 그리스어나 라틴어가 소화하는 동일한 어근을 가지면서 어미만 다른 두 단어의 관계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어는 그나마 띄어쓰기를 해야 하는 ‘것’ 대신 접미사를 통해 한 단어로 소화할 가능성이 있다. 젊은이의 경우가 대표적이고 필자가 만들어낸 예 ‘날달이’도 그리스어의 형태론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경우이지만 무리를 할 수는 있지만, 원래 띄어쓰기가 없고 어미 개념이 없는 중국어에서는 새로운 字를 추가하지 않고서는 인유 관계를 표현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者가 所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진 것으로만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sup>18)</sup> 아리스토텔레스가 파생 관계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히 전달되는 지도 사실 확실하지 않다. 아마도 이런 사정이 질 자체*poiotēs, qualitas*와 질을 가진 것*poion, quale*의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파생적으로 표현된다는 언명을 『명리탐』에서는 그렇게까지 강조하지는 않은 이유일 수도 있겠다. 『명리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주도적인 연결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을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다루고 있어서 중국어 번역만

18) 손영식 (2015), p. 103 참고. 용자勇者가 용감함을 가진 것(기체)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용기라는 것’처럼 추상명사를 가리킬 수도 있고, 農者, 天下之大本也에서 농자는 농부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농업이라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읽어서는 질 자체와 질을 가진 것, 何似와 何似者 사이의 관계가 서로 비슷한 비율을 갖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는 인상을 받을 정도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도적인 파생 관계 이외의 것으로 제시하는 것을 『명리탐』이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若非舉本名, 如云角力者, 是乃因性能, 原非因本名, 是特指其義. 設云角力者, 角力即本名. 然此非性能, 惟屬所習藝. 固自分他類.<sup>19)</sup>

본래 그 이름[本名]을 들 수 있는 게 아닌 경우가 있다. 예컨대 ‘힘을 다투는 사람[角力者-권투 선수]’이라고 말하는 것은, ‘性能’으로 인한 것이며, 원래 ‘本名’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는 단지 ‘그 뜻을 가리킬 [指其義]’ 뿐이다. (그런데) 만약 ‘角力者’라고 할 때, ‘角力’은 곧 ‘本名’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性能’이 아니며 오직 익혀서 습득한 것[所習藝]에 속할 뿐이다. 진실로 다른 류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두 번째 방식은 어떤 성질을 가진 것의 이름은 있는데 성질 자체의 이름은 없는 경우이다. 파생 관계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자신 사태는 있으나 이름은 없는 경우를 곧잘 지적하고 있으므로<sup>20)</sup>, 파생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사물 혹은 사태는 있으나 이름은 없는 경우, 그래서 파생에 관한 형태론적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를 처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명리탐』은

19) 『名理探』 pp. 475-476.

20)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비롯하여 다른 작품에서도 종종 등장한다. 덕은 두 가지 악덕 사이의 중용이라는 설명구도가 잘 맞는 경우가 있고 (가령 용기는 무모와 비겁 사이의 중용), 사태는 있으나 그 사태를 지시하는 이름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지나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쪽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름이 없다. (우리는 앞에서 많은 것들에 이름이 없다고 했다)” EN 3권, 7장, 1115b24-25; 2권 7장 1107b2; 1107b29; 1108a5; 4권 4장 1125b17-18; 4권 5장 1125B26-29; 4권 6장 1126b19-20 등도 참고하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태를 지시하는 이름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도 지적한다. 『명제론』 De Interpretatione 2장 16a30-31; 3장 16b12-13.

이름이 아니라[原非因本名] 뜻을 가리켜[是特指其義] 연결된다고 설명한다. 피아니스트라는 말은 피아노 연주자, 피아노 연주를 잘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피아노 연주를 잘 하는 능력’을 부르는 한 단어는 없다고 가정하면 지금 설명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명리탐』이 원문의 예를 번역하고 있는 권투선수角力者 역시 ‘권투를 잘 하는 능력’을 지시하는 본명이 없는 경우로 이해해야 한다. 다만 그리스어에는 ‘권투술’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으므로 이것으로부터 파생관계를 말할 수도 있지만, 이때는 본성적인 능력에 기반한 성질<sup>21)</sup>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습득한 능력에 가까우니 따로 분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술武術에서 무인武人이 나왔지만 자연적 소질이라는 의미의 ‘성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습득한 특징에서 나온 것으로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或亦有本名. 顧其云何似, 却不就其名. 如云爲善者, 雖就其德能, 而德非可名, 第指義而謂<sup>22)</sup>.

혹은 ‘本名’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何似라고 불리는 것을 살펴보면, 그 이름[其名]을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선을 행하는 사람[爲善者]’이라고 말하는 경우에, 비록 그 ‘德能’을 가지고 (말한 것이지만), 그러나 ‘德’에서는 이름을 만들 수[可名] 없고 단지 그것의 ‘뜻을 가리켜[指義]’ 그렇게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경우는 더욱 드문 경우인데 의미론적으로 연결된 두 사물이 각각 이름을 갖고 있으나 형태는 전혀 다른 경우라 파생의 형태론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이다. 한국어에서는 한 분야의 전문기술을 최고의 수준으로 발휘하는 사람을 ‘달인’이라고 부르는데, 전문기술은 다르지만

21) 아리스토텔레스의 질 분류에 따른 두 번째 종류가 본성적으로 타고난 능력 혹은 소질에 근거한 것이었다. 건강한 체질이나 허약한 체질처럼 타고난 것 혹은 무언가를 잘 할 수 있는 소질쪽을 말하는 것이었으므로, 후천적으로 습득한 능력과는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Cat.8, 9a14-27

22) 『名理探』 p.476.

각 분야에서의 ‘능숙성’을 토대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라고 동의한다면, 능숙성을 가지고 달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러한 경우가 될 것이다. 능숙성과 달인은 형태론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어에서는 물론 다른 예, 즉, 덕 $\alpha\rho\epsilon\tau\epsilon$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 덕에 기초해서 훌륭한 사람 $\sigma\upsilon\delta\alpha\iota\omicron\varsigma$ 라고 부르는 경우를 들어 설명한다. 그리스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덕인 $\delta\epsilon\iota\omicron\upsilon\varsigma$ :  $\alpha\rho\epsilon\tau\alpha\iota\omicron\varsigma$ 이라고 부르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그 연결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기에 이런 예가 성립한 것이다. 이런 사정은 언어마다 달라서 마침 아리스토텔레스가 준거하고 있는 고전 그리스어의 예는 중국어로 번역되는 순간 그렇게 훌륭한 예로 기능하는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용감한 장수와 덕이 있는 장수를 각각 용장 $\text{勇將}$ 과 덕장 $\text{德將}$ 으로 부르면서 덕으로부터 파생어를 만들어내지 않던가? 『명리탐』의 라틴어 저본에서는 덕 $\text{virtus}$ 과 훌륭한 사람 $\text{honestus}$ : 爲善者의 관계가 의미론적으로는 ‘덕’에 기초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부르는 것이지만 형태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즉 파생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고 지적하지만, 당대 독자들은 왜 덕에서 이름을 만들 수 없는 것인지 의아했을 가능성이 있다.

질 범주가 가시적으로 가장 데노미나티바에 근거한 설명방식을 많이 쓰는 범주이지만 『명리탐』은 원천 언어 $\text{source language}$ 의 고유한 특징에 의존하는 어떤 사유의 번역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진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그 사유를 정식화한 언어의 형태론적 구조와 연결된 문제였기에 번역 언어 $\text{target language}$ 에서 원천 언어가 강조하는 형태론적 특징보다 그 핵심에 담겨있는 의미론적 연결, 즉 ‘그 뜻을 가리키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3) 소유와 결여의 대립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 범주에 관한 논의를 끝낸 후 이어지는 소위 ‘범주 후 논의postpraedicamenta’에서 대립 주제를 다루는데 여기서 대립의 한 종류로 소유와 결여의 대립이 등장한다. 2와 1/2 사이에서 성립하는 것과 같은 상대적 대립, 검은색과 흰색 사이에서 성립하는 것과 같은 반대적 대립, 진위치를 갖는 문장 사이에서 성립하는 모순적 대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립의 한 종류라는 것이다.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그가 왜 이것을 대립의 한 종류로 독립시켰는지 어렵지만 이해할 수 있는데<sup>23)</sup>, 더욱 큰 어려움을 주는 대목은 도대체 어떤 구별인지, 또 왜 필요한지 모를 구별을 제시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의 한 복판에서 데노미나티바 사유가 작동하는 결정적 구절을 만나게 된다.

Privatum autem esse, habitumque habere, non est privatio atque habitus : nam visus quidem est habitus, caecitas vero privatio. At habere visum non est visus, neque caecum esse caecitas est : etenim caecitas est privatio quaedam : caecum autem esse, est privatum esse, et non privatio. Praeterea si caecitas idem esset, ac caecum esse, utraque profecto de eodem praedicarentur : at homo dicitur quidem caecus : caecitas autem nullo dicitur pacto<sup>24)</sup>.

결여되었다는 것, 소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여steresis, privatio와 소유hexis, habitus가 아니다. 시각/시력이 소유이고, 맹목<sup>25)</sup>typhlotes, caecitas이 결여이지, 시각/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chein ten opsin, habere visum은 시각/시력이 아니고, 맹인이라는 것to typhlon einai, caecum esse도 맹목이 아니다. 맹목은 일종의 결여이나 맹인이라는

23) 이 주제에 관한 일반적 입문으로 강상진 (2016)을 보라.

24) *Conimbricensis* p. 394.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번역은 필자의 것이다.

25) 지금 typhlotes, caecitas의 번역어로 쓰고 있는 ‘맹목’은 한국어에서 이런 뜻으로 쓰이지 않지만 맹인과 짝이 될 만한 다른 번역어가 없어서 ‘본성적 눈으로 보지 못함’을 표현하기 위해 차용한다.

것은 결여되었다는 것이지, 결여는 아니니까. 더 나아가 만약 맹목과 맹인이라는 것이 동일하다면, 양자 모두 공히 동일한 것에 대해 서술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맹인이라고 말해지지 맹목이라고는 절대로 말해지지 않는다.<sup>26)</sup>

이 대목에 얽힌 모든 문제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할 수는 없으니 일단 파생 관계에 들어가는 두 사물 혹은 두 이름이 서로 다름을 서술predication 관점에서 입증하고 있다는 점만 지적해 두자. 맹목blindness과 맹목을 가진(자)blind를 서로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그 둘이 서술의 맥락에서 보여주는 차이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눈이 멀었다면 그에게 서술되는 것은 ‘맹목을 가진(자)’ 혹은 ‘눈먼 자blind’이지 ‘맹목’ 혹은 ‘눈멀blindness’이 아니다. 보다 한국어다운 예문으로 만들자면, 어떤 전문기술에 대한 능숙성을 가진 사람은 ‘능숙성’이라 불리지 않고 ‘달인’이라고 불린다. 야구 경기에서 최초로 공을 던짐으로써 경기를 시작하게 하는 선수는 주로 ‘투구’를 담당하지만 ‘투구’라고 부르지 않고 거기서 파생된 이름인 ‘투수’로 부른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를 이해하는 중세의 전통은 이러한 상황을 실제 범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범주들이 실제 범주에 얘기될 때 따르는 언어적 형식으로 이해해서 “속성 범주는 (실체범주에 대해) 파생적으로 얘기된다. (accidens denominative dicitur)”<sup>27)</sup>로 정리했다.

26) Cat. 10, 12a35-12b1, 번역은 필자의 것. Ackrill의 영어 번역은 다음과 같다. “Being deprived and possessing are not privation and possession. For sight is a possession and blindness a privation, but having sight is not sight nor is being blind blindness. For blindness is a particular privation but being blind is being deprived, not a privation. Moreover, if blindness were the same as being blind both would be predicated of the same thing. But though a man is called blind a man is certainly not called blindness”. Ackrill (1963), pp. 33-34.

27) 이 정식은 Petrus Hispanus (1972) p. 25, 2-6 “Genus, differentia, species, proprium univoce praedicantur, accidens autem non praedicatur univoce sed denominative”; Johannes Buridanus (1995) n. 2.1.3 pp. 12-14. 이를 활용한 범주 설명에 대해서는 강상진 (2014), pp. 112-116.

이제 이 대목에 대한 『명리탐』의 번역을 살펴보자.

有缺與缺，有模與模，義蓋不一。  
 見用爲模，瞽則爲缺。有見用者，非謂見用。  
 指謂瞽者，非指脫瞽。見用脫瞽，義俱脫底。見者瞽者，指其托底。  
 若使脫瞽，不異瞽者，即可用二，合而稱一。  
 顧舉瞽者，可以稱人。脫瞽則否，  
 惟云有模。與夫缺模，云脫底模，云脫底缺。此謂相對，于義爲一<sup>28)</sup>。

결여를 가지는 것과 결여 [자체], 갖춤을 가진과 갖춤 [자체]는 모두 그 뜻이 같지 않다. 시각의 사용은 갖춤이고 눈멀은 결여이지만, 시각의 사용을 갖춘 자는 시각의 사용이 아니고 (어떤 이를) 가리켜 ‘눈먼 자’라고 말하는 것은 눈멀에 빠져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 시각의 사용과 눈멀에 빠져있음은 그 뜻이 모두 바탕을 벗어나지만, 시각의 사용을 갖춘 자와 눈먼 자는 그 의미가 바탕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2) 만약 눈멀에 빠져있음과 눈먼 자가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둘로 써야 마땅한 것을 합하여 하나로 칭하는 것이다. 눈먼 자를 들어 살펴보자면 그것으로써 사람을 칭할 수 있으나, 눈멀(에 빠져있음)은 그럴 수 없다. 오직 ‘갖춤을 가진’을 말할 때, ‘갖춤을 결여함’과 짝을 지을 수 있으며, ‘바탕(기체)을 벗어난 갖춤’과 ‘바탕(기체)을 벗어난 결여’를 말할 때 이것을 서로 대립한다고 말하는 것이니 또한 그 뜻에서도 하나가 되는 것이다.

『명리탐』의 번역자들은 원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저본에는 없는 설명까지 제공하면서 지금까지 테노미나티바 사유에서 일관되게 구별되는 두 축을 선명하게 대조한다. 하나는 통상 추상명사로 표현되는 눈멀, 힘 자체, 의로움 자체이며, 다른 하나는 통상 그런 성질을 가진 것, 구체명사로 표현되는 눈먼 자, 힘 것, 의로운 것 등등이다. 정확히 무엇이 서로 짝인지 알아야 대립 관계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 관점에서 파생의 원천이 되는 것과 파생된 것을 정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저본인 코임브라 텍스트에는 기체를 벗어난 것인지

28) 『名理探』 p. 541.

의존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명리탐』은 기체 의존 여부를 가지고 양자를 구별해낸다. 시각의 사용이나 눈먼 상태(눈땀에 빠져있음)은 바탕에 의존하지 않는<sup>29)</sup> 의미를 갖는 반면[見用脫瞽, 義俱脫底], 시각사용을 갖춘 자나 눈먼 자는 그 뜻이 바탕에 의존한다[見者瞽者, 指其托底]. 지금까지의 설명에서 암암리에 가정되었으나 이렇게 정확히 표명된 적은 없는 생각이었는데, 예상치 않았던 곳에서 드디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미 날개와 날개를 가진 것, 힘과 흰 것, 의와 의로운 것의 관계에서 살펴보았던 것들이다. 우리는 이미 데노미나티바가 그리스어 혹은 라틴어의 형태론적 특징에 의존하는 정의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것이 번역언어인 중국어에서 제대로 전달되기는 어려웠기에 보다 근본적인 의미론적 연결에 무게를 두는 선택을 했다는 점을 얘기했었다. 우리는 다음 절에서 이 계기를 보다 상세하게 살필 것인 바 (이것이 『명리탐』 순서를 바꾸어 토론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수수께끼 같이 들리는 데노미나티바의 『명리탐』 번역이 정확히 무엇이며 왜 그런 방식으로 제시되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시도할 것이다.

#### 4. 데노미나티바와 합칭지명合稱之名

##### 1) 데노미나티바의 번역: 합칭지명

『명리탐』이 얼마나 과감하게 번역하는지 감상하기 위해 일단 라틴어 저본을 읽어보자. 지금까지 순서를 바꾸어 지금 살펴보는 대목보다 뒤에

---

29) 김수중 (2009), p. 15; 공손룡자, 견백론 “堅은 꼭 石에서만 堅이 되는게 아니며, 여러 사물 속에 兼하여 있다. 또 반드시 사물과 결합해서만 堅이 되는 게 아니며, 堅은 (그 자체로) 堅이다. 石이나 다른 사물 없이도 堅이기 때문에, ‘堅’은 천하에 존재하지 않고 감추어져 존재한다.” 堅未與石爲堅, 而物兼. 未與物爲堅, 而堅必堅. 其不堅石、物而堅, 天下未有若堅而堅藏에 관한 그의 토론(pp. 14-15)도 참고하라.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있는 손영식 (2015), pp. 95-128도 함께 참고하라.

나오는 것들을 먼저 검토한 것은 1장에서 출현하는 최초의 정의가 너무 간략하기 때문이었고, 저본과 『명리탐』의 차이가 커서 미리 설명을 위한 자원들을 마련해 놓지 않고서는 도대체 접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Denominativa ea dicuntur, quae ab aliquo nominis appellationem habent, solo differentia casu, ut a grammatica grammaticus appellationem habet, et a fortitudine fortis.<sup>30)</sup>

다른 것에서부터 어미만 다르게 이름을 취해 오는 것들이 데노미나티바이다. 예를 들어 의사는 의술에서 이름을 가져오고, 용장勇將은 용기에서 이름을 가져오는 것처럼 말이다.<sup>31)</sup>

『명리탐』은 이 대목을 이렇게 새기고 있다.

由彼他物, 以成厥名, 是緣底模, 合成而謂. 如德與人, 皆稱謂勇, 人之謂勇, 由德而謂<sup>32)</sup>.

저 다른 사물에 근거하여 그 이름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체底(=바탕)와 형상模, 이 둘을 합성하여 일컫는 것에서 연유한다. 예를 들어 덕德(=형상)과 사람人(=기체)이 함께할 때 둘 모두를 (합성하여) 일컬어 ‘용(勇)’이라 말하는데, 그 사람을 ‘勇’이라 말하는 것은 그 덕에 연유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범주』를 어느 정도 공부하고 데노미나티바에 근거한 사유에 익숙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명리탐』의 번역이 과연 원전에 충실한 설명인지에 대해 평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물에 근거하여 이름을 만드는 경우’까지만 원전의 번역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뜻을 풀어낸 변안 쪽에 가깝고, 예는 더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번역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두 문제에

30) *Conimbricensis* p. 231.

31) Cat.1, 1a12-15. 한국어 번역에서 원문의 예를 한국어에 보다 적합한 예로 필자가 바꾸었다. 원문을 직역하면 ‘문법학자grammaticus’가 ‘문법grammatica’에서, 용감한 자가 용감에서 이름을 가져오는 것처럼 말이다’가 된다.

32) 『名理探』 p. 292.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는 합성하여 일컫는다는 것의 의미. 둘째는 합성하여 일컫는 것의 예로 든 덕德, 사람人, 용勇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재구성.

첫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구절의 각주를 번역하는 대목에 단서가 있다.

茲論緣底模之合以爲稱者. 所函有三. 一、是其模, 如白也. 二、是其模之底, 如雪也. 三、是緣模與底之合成者, 如稱白者. 在模謂之稱底. 在底謂之受稱. 此緣模與底之合成者也. 西言得諾靡納第勿. 譯云合稱之名.<sup>33)</sup>

여기에서는 기체와 형상을 합한 것으로부터 칭하는 것을 논한다. 이러한 칭함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니, 그 첫째는 형상模이다. 예를 들어 흰白과 같은 것이다. 둘째는 그 형상의 기체이다. 예를 들어, 눈雪과 같은 것이다. 셋째는 형상과 기체를 엮어서 이루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하얀 것白者과 같은 것이다. 형상에서 기체를 칭하는 바를 말하고, 기체에서 그 칭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것으로 인하여 형상과 기체의 합성자가 되는 것이니, 서양언어로는 ‘데노미나티바’라고 하고, 번역하면 ‘합하여 칭하는 이름’이 된다.

데노미나티바, 혹은 파생된 것을 형상과 기체로부터 설명하는 방식은 보에티우스까지<sup>34)</sup> 거슬러 올라간다. 젊음이라는 추상명사, 기체에 의존하지 않는 의미를 가진 것이 있고, 이 젊음을 받아들이는 것, 가령 사람이 있고, 이 둘을 결합했을 때 부르는 이름이 ‘젊은이’라면 젊음으로부터 파생된 ‘젊은이’는 항상 자신이 존재하게 된 계기로 형상(젊음)과 기체(사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야구 경기의 투수는 투구라는 동작, 혹은 야구경기에서의 역할에서

33) 『名理探』 pp. 292-293.

34) 물론 보에티우스도 다른 그리스 주석가들에게 배웠을 가능성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명리탐』의 저본인 코임브라 텍스트가 참고할 수 있는 라틴 전통 안에서는 보에티우스를 시초로 볼 수 있다. Boethius, *in Cat. 270C* Tres namque res sunt in eo in quo est habitus, is qui habet, ea res quae habetur, et habere, ut est is qui videt, et ipse visus, et hoc ipsum quod ex utrisque, fit ex eo scilicet qui videt et visu, quod est videre. 강상진 (2016), pp. 137-139.

이름을 받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기체(야구선수)를 필요로 한다. 투수는 그러니까 투구라는 야구경기에서의 역할(형상)을 수행하는 야구선수를 함께 부르는 이름이다. 판사는 판결이라는 사회적으로 할당된 역할(형상)에서 이름을 받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기체)까지 함께 부르는 이름이다. 정확히 이런 의미에서 데노미나티바는 형상의 명칭과 기체의 명칭을 합쳐 부르는 것이라는 설명이 통용된다. 데노미나티바의 뜻 번역으로 『명리탐』이 제시한 합칭지명合稱之名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아직 포지션을 부여받지 못한 야구선수는 투수가 아니고, 투구라는 동작을 반드시 인간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형상 자체만을 얘기하거나, 기체 자체만을 얘기할 때는 합칭合稱의 계기가 들어가지 않는다. 데노미나티바의 형성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합칭의 계기 없이는 데노미나티바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시할 수 있다. 『명리탐』은 기가 막힌 대칭적인 문장으로 이 사태를 잡아낸다. 在模謂之稱底. 필자는 자신할 수 없지만 데노미나티바에서 말하는 형상은 기체(바탕) 없는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체를 칭하는 형상을 말하는 것이고, 在底謂之受稱 기체는 단순히 형상과 무관한 기체가 아니라 형상으로 부터의 칭을 받아들이는 기체를 말한다는 뜻으로 새기고 싶다. 칭을 중심에 두고 한쪽, 즉 형상은 이름을 주고, 다른 쪽, 즉 기체는 그 형상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름도 받아들인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해석이 맞다면 합칭지명合稱之名이라는 『명리탐』의 데노미나티바의 뜻 번역은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 2) 합칭지명, 추측과 한계

그런데 어려움은 여기서 제시되는 기체의 의미 계기에 대한 평가이다. 그리스어-라틴어 원문이나 필자가 가능한 그 구조에 맞추려 노력한 한국어 예의 경우 기체 의미계기가 매우 미약하다. 젊음이, 어린이의 ‘이’나, 판사, 의사의 ‘사’, 투수, 포수의 ‘수’는 모두 독자적으로 쓰일 때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고 이미 특정의미를 가진 말에 붙었을 때 그것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마찬가지로 어미만 바꾸어 어떤 성질이나 능력으로부터 그런 성질이나 능력을 가진 주체를 가리킬 경우 동원되는 어미는 그것만으로 독립된 단어로 쓰일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기체의 계기는 형상의 수용 관점에서만 이름을 받을 뿐 독자적인 의미 계기로까지 떠오르지 않는 이유이다<sup>35)</sup>. 이러한 언어적 특징을 갖지 않는 중국어의 경우에는 기체가 원천 언어에서 희망하는 것 이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이 필자가 보기에 설명을 위해 동원되는 예의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명리탐』은 데노미나티바 백자白者가 흰白과 눈雪에서 연유 혹은 합성해서 성립했다고 설명한다. 자가 독자적인 의미계기를 갖지 않는 말에 가깝다면, 雪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기체가 굳이 눈일 필요는 없다. 白墨도 있고, 白紙도 있고 白瓷도 있지 않은가? 雪을 雪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것이 받아들인 형상 白에 의거해서 白者라고 부를 때 바로 그 이름 白者가 데노미나티바인 셈이다. 白墨, 白紙, 白瓷, 白雪 모두 백과 관계하지만 데노미나티바가 아니다. 뒤에 붙어있는 墨, 紙, 瓷, 雪이 모두 기체의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 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合稱之名에서 합해져야 할 것 중 하나인 기체 계기는 어떻게 새겨야 한단 말인가? 원천 언어와 번역 언어의 구조적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난관을 어떻게 돌파하려 했는지 추측 이상은 할 수 없지만 필자의 생각은 단어 수준에서 막힌 번역의 문제를 풀기 위해 서술predication로 나아가는 방법을 썼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소유와 결여의 대립을 설명하면서 잠깐 제시했던 논증 방식이다. “눈먼 자를 들어 살펴보자면 그것으로써 사람을 칭할 수 있으나, 눈뿔(에 빠져있음)은 그럴 수 없다. 顧舉瞽者, 可以稱人. 脫瞽則否.” 이 가설에 따르자면 이지조와 푸르타도는 “눈은 하얗다(Snow is white), 혹은 눈은 하얀 것이다(Snow is a white thing).”이라는 문법적인 문장과 “\*눈은 흰이다.(Snow is whiteness.)”라는 비문법적인 문장을 대조하면

35) 이것이 기체基體의 원어인 hypokeimenon, 혹은 subiectum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서 데노미나티바를 설명한 것이다. 필자는 이런 종류의 설명방식이 이제 살펴보게 될 두 번째 문제, 즉 德, 人, 勇 예의 재구성에 어느 정도 유용하리라 믿는다.

두 번째 문제. 형상과 기체의 합성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면 이제는 이 설명 방식을 “덕(德=형상)과 사람(人=기체)이 함께할 때 둘 모두를 (합성하여) 일컬어 ‘용(勇)이라 말하는데, 그 사람을 ‘勇’이라 말하는 것은 그 덕에 연유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에 적용해야 한다. 앞서 지적하였듯 중국어의 성격상 기체의 의미 계기가 원천 언어에서 희망하는 것 이상으로 강하게 부각되는 것이 문제로 보인다. 白과 白者, 義와 義者처럼 다른 곳에서는 그나마 유지되던 데노미나티바의 형태론적 연결을 완전히 포기한 것과 같은 예라 질 범주에서 드문 경우로 들었던 덕(arete, virtus)과 훌륭한 사람(spoudaios, honestus)의 관계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일 정도이다. 필자는 여기에서도 어떤 사람을 용감하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로 그의 덕/훌륭함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예를 생각해 볼 만하다고 판단한다. 다음과 같은 영어 문장을 생각해 보자.

We call a man brave on the basis of his virtue.

그를 勇人(brave man) 혹은 有勇者라고 불러서도 데노미나티바의 예가 성립하지 않고, 勇氣(bravery)라고 부를 수도 없다. 이것이 다른 곳에서의 설명으로부터 기대했던 용자(勇者) 대신 勇만 등장하는 이유가 아닐까? 후속 연구를 통해 증거를 더 모아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추측이 해볼 만한 것이라면, 아마 추후 연구를 위해 이런 정리가 가능할 듯싶다. 단어 수준에서는 기체의 의미 계기가 사라지거나 그 계기가 최소한으로 축소된 데노미나티바를 잡아낼 수 없어서, 서술 수준에서 기체 계기가 거의 사라진 ‘형용사적 표현’<sup>36)</sup>으로 가능한 원전의 뜻에 접근하려 했던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겠다.

36) 형용사 의미론에 관한 간단한 설명으로 강상진 (2004), pp. 207-234.

하지만 이러한 자비의 원칙(principle of charity) 원칙에 입각한 추측에도 불구하고 勇에서 기체 사람과 형상 덕德을 읽어내라는 주문은 과도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데노미나티바의 뜻 번역인 ‘합칭지명合稱之名’이 정녕 이와 같이 완전히 다른 제3의 이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설명방식을 고수한다면, 원전인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형태론에 근거해서 가장 잘 표현되었던 데노미나티바의 의미론적 핵심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라고 말해야 할 정도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후의 설명에서는 다시 저본의 입장에 가까운 설명방식으로 회귀하고 있어서 이런 의심이 강화되지는 않는다. 물론 이것이 『명리탐』의 번역 작업이 진척되면서 번역자였던 푸르타도와 이지조 사이의 소통과 이해의 수준이 높아진 것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는 깊은 연결이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상당한 이론적 준비 작업 없이 적어도 이 단계의 번역을 가지고는 원전의 뜻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종류의 어려움, 즉 원천 언어의 형태론에서 가장 잘 정식화되던 의미론적 사유가 번역 언어의 형태론이라는 난관 때문에 꺾어야 하는 어려움이 단순히 번역의 대목에서만 문제가 될 성격의 것인지, 아니면 보다 깊은 곳에서 영향을 끼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대해야 할 것이다.

### Ⅲ. 나가는 말

데노미나티바의 뜻 번역으로 제시된 합칭지명合稱之名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원천 언어에서 가능했던 형태론적 설명을 따라갈 수 없는 번역 언어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이었고, 적어도 그 점에서는 데노미나티바의 철학적 핵심을 정확히 포착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의 조어법상 충분히 소화하는 데 여전히 난점이 남는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원문 번역과 각주 번역을 참고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 『명리탐』이 문제quaestio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보다 깊은 수준의 논의까지 파고 들어야 보다 선명한 분석과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세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수용하는 방식을 지금의 그것과 대비시키는 한 방식은 중세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문장이 최종적 진리처럼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자에게 성서의 한 문장 한 문장이 영원한 진리로 받아들여지듯 그렇게 최종적이며 따라서 더 이상 고칠 것이 없는 참된 언명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의 첫 번째 단점은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의 철학적 사유방식을 이해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에서는 잠정적인 가정처럼 검토를 위해 제시될 뿐 아리스토텔레스 본인의 입장은 아닌 것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자신 결론을 내리지만 새로운 발견이나 새로운 논증에 의해 얼마든지 포기되거나 교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는 대목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의 이면에는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 밝혀졌다고 믿었던 진실이 성서의 그것처럼 초역사적이라는 가정이 깔려있는 듯 하다. 이것과 연결되는 또 하나의 전제는 지금부터 이 논문이 다루는 주제와 연결되는 것인바, 그 진실이 어떤 언어로든 표현될 수 있으며 어떤 언어로 표현되든 동일하다는 생각일 것이다. 만약 이런 생각을 『명리탐』의 번역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수용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테노미나티바를 통한 통찰이 원리적으로 중국어로 번역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일단 테노미나티바 및 그와 연관된 사유방식을 번역하는 데서 봉착했던 어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두는 것에 만족해야 할 것 같다.

1. 이미 여러차례 지적한 것처럼 원천 언어가 중요한 개념적 도구로 쓰고 있는 <테노미나티바>가 원천 언어의 형태론적 특징에 대단히 의존하고 있는 것이라 『명리탐』의 번역자들이 형태론적 특징보다 의미론적 핵심을

부각시키는 번역을 선택한 것은 충분히 현명한 선택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선택에도 불구하고 가설로 제시한 것처럼 단어 수준을 떠나 서술 수준의 설명과 같은 추가적인 장치 없이는 극복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로 보인다.

2. 『명리탐』의 합칭지명이 <데노미나티바>에 관한 최초의 번역이었으며, 언어 구조 상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중국어에 보다 적합한 다른 예를 찾는 방식으로 돌파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 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데노미나티바>를 둘러싼 보다 철학적인 문제는 아마도 이런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과연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언어적) 사유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언어로 사유해도 동일하게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나 통찰 같은 것이 있는가?

보편적인 줄 알았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어떤 부분은 과도하게 고전 그리스어 의존적이고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 비판적인 거리를 두지 않으면, 혹은 적어도 그 한계 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의식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본류에도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때 우리의 언어적 한계를 벗어나는 사유를 하는 셈인가? 아니면 착각일 뿐 여전히 보편적일 수 없는 언어적 한계 내에서만 사유를 할 수 있을 뿐인가? 데노미나티바와 합칭지명合稱之名의 문제는 이제 시작했을 뿐이다<sup>37)</sup>.

---

37) 『名理探』의 한문 번역과 인용 확인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준 염정삼 교수와 문수정 박사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 참고문헌

- 강상진 (2000), 『아리스토텔레스 <범주>편 연구 - 구성과 문제』, 『철학사상』, 10: 125-143.
- \_\_\_\_\_ (2001), 『아리스토텔레스 <토피카>편의 범주론 연구』, 『철학연구』, 53: 95-115.
- \_\_\_\_\_ (2004), 『아벨라르두스의 형용사 의미론. <철학자와 유대인과 그리스도교인 사이의 대화> nn.141-146』, 『중세철학』, 10: 207-234.
- \_\_\_\_\_ (2014), 『서양철학에서의 범주의 문제』, 『사물의 분류와 지식의 탄생 - 동서 사유의 교차와 수렴』, 김상환·박영선 편, pp. 125-143, 서울: 이학사.
- \_\_\_\_\_ (2016), 『소유 범주와 소유-결여 대립 - 12세기 파생어 이해의 단초』, 『중세철학』, 22: 117-146.
- \_\_\_\_\_ (2019a), 『아리스토텔레스의 관계 범주: 이해의 시도』, 『인간·환경·미래』, 22: 251-278.
- \_\_\_\_\_ (2019b), 『아벨라르두스의 관계 범주 이해 - 유명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중세철학』, 25: 153-185.
- \_\_\_\_\_ (2019c), 『지록위마(指鹿爲馬), 문장의 진리치에 관한 <명리탐>의 침묵에 관한 논변』, 『교회사학』, 16: 351-378.
- 김수중 (2009), 『개념, 존재, 삶 - 동양사상과 ‘개념’의 문제』, 『개념과 소통』, 3: 5-33.
- \_\_\_\_\_ (2014), 『동양적 삶의 방식과 범주의 문제』, 『사물의 분류와 지식의 탄생 - 동서 사유의 교차와 수렴』, 김상환·박영선 편, pp. 99-117, 서울: 이학사.
- 박흥규 (2004) 『<필레보스>편 총정리』, 『플라톤 후기철학 강의』 pp. 240-280, 서울: 민음사
- 손영식 (2015), 『『공손론자』 『견백론』 연구 - 실체의 부정과 속성 보편주의』, 『동방학』, 32: 95-128.
- 염정삼 (2009), 『‘論理(Logic)’라는 개념어의 형성: 중국에서의 활용사례를 고찰하며』, 『인간·환경·미래』, 3: 145-147.
- \_\_\_\_\_ (2011), 『明代 말기 中國의 서양학문수용 - 《西學凡》과 《名理探》의 소개를 중심으로-』, 『중국학보』, 63: 76-81.
- \_\_\_\_\_ (2015), 『先秦시기 有指와 無指的 논전- 公孫龍子 指物論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71: 467-492.
- \_\_\_\_\_ (2016), 『명리탐에 소개된 서구논리학의 특성』, 『인간·환경·미래』, 16:

129-169.

\_\_\_\_\_ (2018), 「‘명리(名理)’의 ‘명(名)’과 중국선진시기 ‘명가(名家)’의 ‘명(名)’」, 『중국문학』, 95: 49-71.

\_\_\_\_\_ (2019), 「<명리탐>에서 ‘칭(稱)을 번역어로 선택한 이지조의 입장과 명실론(名實論)의 전통」, 『교회사학』, 16: 381-408.

이태수 (1990), 「범주」, 『철학과 현실』, 6: 327-337.

허민준 (2016), 「아리스토텔레스 범주론에 대한 16세기 중국번역본의 출처: 『명리탐』과 신플라톤 학파의 주석 전통」, 『인간·환경·미래』, 16: 173-204.

허민준·염정삼 (2016), 「코임브라대학 아리스토텔레스 범주론 라틴어본 서문과 중국어본 『명리탐』 서문의 번역」, 『인간·환경·미래』, 17: 167-184.

아리스토텔레스, 김진성 역 (2005) 『범주론 명제론』, 서울: 이제이북스

傅汎際譯義, 李之藻達辭 (1965), 『名理探』, 臺北:臺灣商務印書館

Ackrill, J.L. (1963), *Aristotle's Categories and De Interpretatione*. Translated with Notes and Glossary, Oxford: Clarendon.

Anselmus (1946), *De Grammatico*, in: *S. Anselmi Opera omnia*, ad fidem codicum recensuit, Fr. Schmitt, Edinburgh

Bodeus, R. (2002), *ARISTOTELE Catégories*, Texte établi et traduit, Paris: Les Belles Lettres.

Boethius (1847), *Anicii Manlii Severini Boetii In Categorias Aristotelis libri quatuor*, PL 64, Paris.

Collegii Conimbricensis e Societate Iesu (1606), *Commentarii In Universam Dialecticam Aristotelis Stagiritae*, Conimbricae: Didaci Gomez Loureiro

Henry, Demond Paul (1964), *The 'De Grammatico' of St Anselm: the theory of paronymy*, Notre Dame.

Johannes Buridanus (1995), *Summulae de Preadicabilibus*, Introduction, critical edition and indexes by L.M. de Rijk, Nijmegen.

Meynard, Thierry (2017) “Aristotelian Works in Seventeenth-century China. An Updated Survey and New Analysis”, *Monumenta Serica* 65(1): 61-85

\_\_\_\_\_ (2019) “What the “Failure” of Aristotelian Logic in Seventeenth Century China Teaches Us Today: A Case Study of the Mingli Tan”, *Frontiers of*

*Philosophy in China* 14(2): 248-263.

Minio-Paluello, L. (1949 <sup>2</sup>1956), *Aristotelis Categoriae et Liber de Interpretatione*, Oxford.

Oehler, K. (1984), *Aristoteles Kategorien*, Berlin: Akademie Verlag.

Petrus Hispanus (1972), *Tractatus called afterwards Summule Logicales*. First Critical Edition from the Manuscripts with an Introduction by L.M. De Rijk, Assen: Van Gorcum.

Reding, Jean-Paul (1986), "Greek and Chinese Categories: A Reexamination of the Problem of Linguistic Relativism", *Philosophy East and West* 36(4): 349-374

Reesor, Margaret E. (1972), "Poion and Poiotes in Stoic Philosophy", *Phronesis* 17: 279-285.

Abstract

Denominativa in *Minglitan*: Difficulties and Solutions

Kang, Sang-Jin

One of the conceptual instruments in Aristotle's *Categories*, *Denominativa* (*paronymy*), has a definition that is heavily dependent upon Greek morphology. A seventeenth century Chinese translation, *Minglitan*, had to confront with the problem of conveying a philosophical thought best formulated in a source language into a target language that has a completely different language structure. The authors of *Minglitan* decided to provide a transliteration 得諾靡納第勿 and an interpretative translation of '合稱之名naming by merging, merged name' for the denominativa.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difficulties they had and solutions they tried to offer.

【Keywords】 Aristotle, Categoris, Li zhizao李之藻, Minglitan, Paronymy, Denominativa, He-cheng-zhi-ming合稱之名

논문 투고일: 2020. 03. 20

심사 완료일: 2020. 04. 06

게재 확정일: 2020. 04. 06